

코로나맥주 사라진 멕시코

멕시코의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지만 또 다른 코로나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바로 멕시코인들이 사랑하는 맥주 코로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로나 맥주의 분고장 멕시코에서 코로나 맥주가 사라진 것은 코로나19 탓이다.



▲ 지난 7일, 멕시코시티의 한 편의점 맥주 냉장고가 텅 비어 있다.

멕시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말부터 비필수 활동을 중단을 명령했고, 맥주회사들이 이에 따라 가동을 멈췄다. 코로나와 모델로, 에스트레야 등의 브랜드 맥주를 제조하는 그루포 모델로와 테카테, 도스 에키스 등을 제조하는 하이네켄 멕시코가 생산을 중단했다. 그동안 쌓여있는 재고로 판매가 가능했지만 가동 중단이 길어지자 시중에서 맥주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가동 중단 소식에 맥주 사재기까지 벌어져 재고는 더 빨리 소진됐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멕시코인들은 맥주 없는 격리 생활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한다. 멕시코는 중국, 미국, 브라질에 이어 전 세계에서 맥주 소

비량이 네 번째로 많은 나라다. 1인당 1년에 68.7ℓ를 마셔, 인구 대비 소비량도 적지 않다. 멕시코 소상공인들은 무더위에 격리 생활을 견디는데 맥주는 '필수'라며, 맥주 제조를 필수업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맥주가 귀해지자 일부 가게는 미리 맥주를 빼돌렸다가

비싼 값에 팔기도 한다. 맥주 암시장도 생겼다.

미국과 국경을 맞댄 티후아나에서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넘어온 맥주를 인터넷으로 구매한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평소 120페소(약 5달러)하던 12개들이가 3배가 넘는 400페소에 팔린다. 멕시코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주류 판매 금지령까지 내려져 다른 술도 구할 수 없다.

맥주업체와 소매업체, 그리고 소비자 모두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맥주 공장 가동이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다. 멕시코 연방소비자원은 이달 중순이면 맥주 생산이 재개될 것으로 내다보며, 생산이 재개되면 최근의 비정상적인 가격도 곧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유엔 “부자 나라들, 최빈국 돕지 않으면 코로나19 부메랑 될 것”

유엔이 미국과 유럽 같은 부자 나라들이 최빈국들의 코로나19 대응을 돕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부메랑이 돼 이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마크 로우록 유엔 인도주의 문제 담당 사무차장은 전날 USA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모두가 안전하기 전까진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부유국들이 가난한 나라들의 코로나19 대응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경우 분쟁과 기아, 난민 등 수많은 문제와 불안이 조성돼 훨씬 심각한 글로벌 위기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로우록 사무차장은 또 “선진국 정치인들에게 도움

을 호소하고 있다.”며, “선진국들에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 위치한 최빈국 50여 곳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67억 달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SA투데이는 현재로서는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이 각자도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이 이번 위기의 경제적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모음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로우록 사무차장은 “1년짜리 문제가 10년짜리가 되는 일을 막을 기회가 있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불안, 난민, 테러세력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의 결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아시아계 대상 증오 범죄 증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캐나다 내 아시아계 시민 대상 증오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아시아경제'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시 경찰은 지난달 13일 밴쿠버 시내에서 아시아 여성을 폭행한 용의자를 지명수배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젊은 백인 남성이 자신보다 체구가 훨씬 작은 한 아시아계 여성에 접근, 주먹으로 가격한 뒤 버스를 타고 달아난다. 폭행을 당한 여성은 땅바닥에 쓰러진 채 얼굴을 감싸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공격했다.”며 “폭행의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면 이유 없는 폭행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밴쿠버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현재까지 아시아계 대상 증오 범죄는 20건으로, 지난해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한 12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특히 올해 발생한 증오 범죄 20건 중 16건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3월과 4월 사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 같은 증오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절대로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케네디 스튜어트 밴쿠버 시장 또한 지난달 29일 밴쿠버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보고된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는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다.”며 “몇몇 시민들이 이 같은 증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한다.”고 말했다.



법률 문제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 & 서 법률사무소

- **가정법 Family Law**
이혼, 양육권/방문권, 입양, 리빙트러스트, 혼전(후) 계약
- **이민법 Immigration Law**
가족/취업이민, 신분변경 E-2, H1B, L, O visa
- **민사/형사법 Civil/Criminal Law**
민사소송, DUI
- **상법 Business Law**
법인설립, 계약서
- **번역 업무도 가능합니다**



서자경 변호사
Ja K. Suh, Esq.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Certified by the State Bar of CA
Univ. of Missouri-Columbia 법대 (J.D.)
Univ. of Missouri-Columbia 비평론 석사

서자현 변호사
Ja H. Suh, Esq.

California Western 법대 (J.D., Dean's List)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멤버(ALA)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 협회 위원회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 이사역임
오렌지 카운티 회장단 협회 회원 역임